

## 일단 '호랑이 굴'서 생존

KIA 이종범 '보류 선수'…팀 잔류 가능

구단과 '3할대 미달 은퇴' 불씨는 남아

은퇴 논란에 휘말렸던 이종범(38)이 2009년 보류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팀 잔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2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한 보류선수 명단에 이종범을 올렸다. 반면 시즌 종반 한국무대에 데뷔했던 디아즈와 미국 마이너 무대에서 마스크를 썼던 권운민 등 9명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로써 방출이라는 극단 상황을 피한 '야구 천재' 이종범은 연봉 협상테이블에 앉아 구단과의 내년 시즌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KIA 유니폼을 고수하기 위해선 3할 미달 은퇴론' 등과 관련, 구단과의 협상이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 타율 0.174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이종범은 60% 연봉 감감과 함께 '3할 타율'을 선수 생활 연장을 위한 보증수표로 내세웠지만 0.284의 타율로 올 시즌을 마감하며 은퇴론에 휘말렸다.

이와 더불어 무섭게 큰 이용규화, 가능성은 보여준 신인 나지완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와 맡들려 내년 시즌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단 측에서는 이종범의 명예로운 은퇴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종범은 "선수 이외의 삶에 대해서는 아직 단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며 선수 생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KIA는 이종범 은퇴에 관련한 논의를 했었지만, 이종범이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인 만큼 매서운 자대를 들이밀기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종범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두산과 롯데의 안경현과 염종석이 방출 수모를 겪은 가운데 홀로 생존했지만 여전히 심기가 불편하다. 외부 경로를 통해 구단 측의 은퇴의사를 전해 듣는 등 은퇴설과 관련해 '야구 천재'로서의 자존심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아직 이종범과 구단 측에서는 은퇴 문제와 관련해 정식으로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구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이종범은 구단 측의 방침을 듣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야구 인생을 시작한 광주에서 선수생활을 마무리 하는 게 이종범의 바람이지만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종범은 "선수생활이 나의 유일한 목표인 만큼 다른 팀으로 유니폼을 갈아입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선수생활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다. 기로에 선 이종범의 거취는 팀의 남해 마무리 캔프 마무리 되는 30일 이후 유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편 구단으로부터 은퇴 압박을 받았던 '베어스맨' 안경현(38)은 선수 생활 연장을 위해 방출을 선택, 17년간의 두산 생활



▲보류선수=구단이 소속선수 중 다음연도 선수계약체결권리를 보류하는 선수. 해당선수는 타구단과 선수계약에 관한 교섭을 행하거나 타구단을 위한 모든 야구활동이 금지된다.

을 청산하게 됐다. 자유계약 선수가 된 안경현은 KBO에 의해 8개 구단 보류선수 명단이 공시되는 30일부터 자동지로 옮길 수 있다. 입단 첫해인 1992년 17승 9패 6세이브 2.33의 평균자책점으로 롯데 우승을 이끌었던 염종석(35)도 부상과 세월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LG 김재박 감독 사인 거래설' 진상 조사

프로야구에도 은밀한 '사인거래'가 있다. 고 주장한 김재박 LG 트윈스 감독의 발언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KBO는 26일 오전 하일성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김재박 감독의 발언 진위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곧바로 신상우 총재에게 보고하고 사실 파악에 들어갔다. 하일성 KBO 사무총장은 "현직 감독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진상을 조사해 보고 사실 여부를 따지겠다.

다"고 말했다.

김재박 감독은 지난 25일 전지훈련지인 경남 진주에서 일부 언론과 만나 "선수들간에 이뤄지는 은밀한 '사인거래'가 없어져야 한다. 시즌이 끝난 뒤 몇몇 심판이 내게 그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김 감독은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흘러가는 얘기를 한 걸 두고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쓰다니 나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어깨 부상' 샤라포바 내년 1월 복귀전

'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21·러시아·사진)가 2009년 1월 호주오픈테니스대회를 통해 복귀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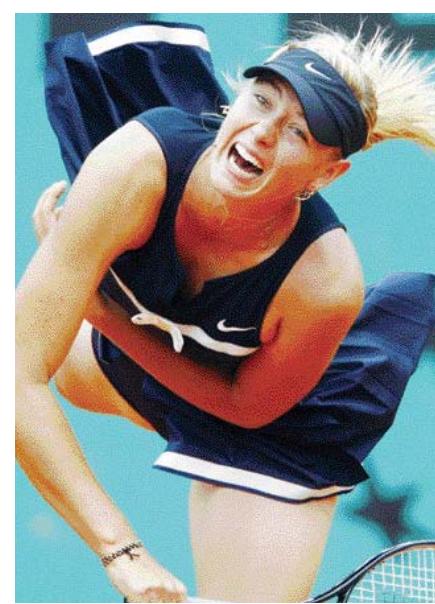
AP통신은 26일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막스 아이센버드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7월 말 어깨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샤라포바가 2009년 1월7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시범 경기에 출전한 뒤 19일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되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을 통해 본격적으로 투어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센버드는 인터뷰에서 "재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호주오픈 텔피언 샤라포바는 어깨부상 때문에 베이징올림픽과 US오픈에 모두 나서지 못했다.

2008년 호주오픈 이후 메이저대회 23회 연속 출전 기록도 중단됐다. 5월 세계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던 샤라포바는 결국 올 시즌을 9위로 마쳤으며 올해 투어 성적은 32승 4패, 우승 3회를 기록했다.

시즌 상금 193만 7천879달러(한화 약 29억원)를 벌어들였다.



인터뷰에서 "재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 내년 LPGA MVP·신인왕

### "신지애가 독차지 할 듯"

#### 미 골프 전문지 예상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 마지막 대회였던 ADT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상금 100만달러를 획득한 신지애(20·하이마트·사진)가 2009년에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과 신인왕을 훙쓸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 골프 전문지가 예상했다.

골프라이제스트 자매지 골프월드는 29일(한국시간) 발매 예정인 최신호 기사에 유명 골프칼럼니스트 루 시락의 글을 싣고 신지애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시락은 "스무살에 20승을 거둔 신지애는 안나카 소렌스탐의 빙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라며 "세계랭킹 6위에 올라 있는 신지애는 2009년부터 LPGA 투어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아마 LPGA 사무국은 신인상 트로피에 벌써 주인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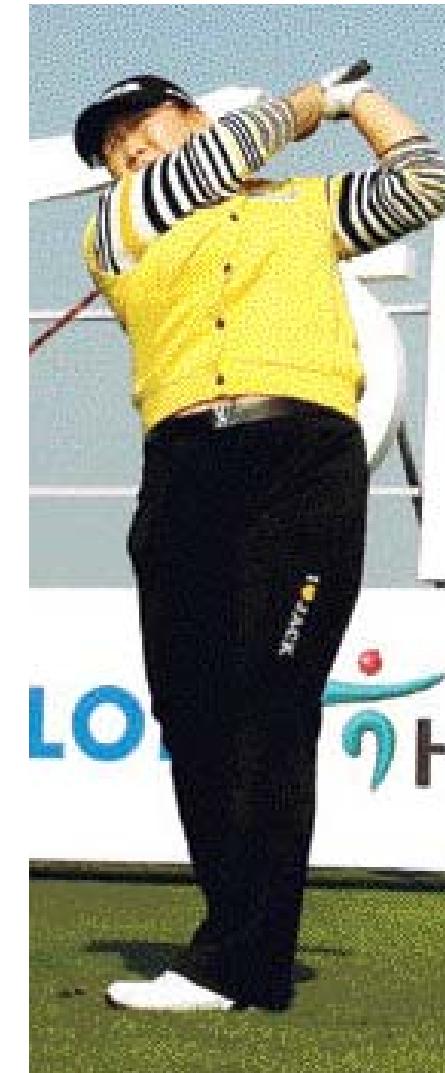
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파로 경쟁을 펼칠 후보가 미망히 없을 정도로 그의 독주가 예상된다는 의미다. 또 "1978년 낸시 로페스 이후 처음으로 신인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훙쓸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골프월드는 "신지애의 플레이스타일은 소렌스탐을 닮았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파를 지켜가는 생각으로 골프를 친다는 신지애의 방식은 소렌스탐의 경기운영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평했다.

시락은 "우승한 뒤 통역 없이 자신 있게 인터뷰를 한 신지애는 일본어에도 능통하다"고 소개한 이 기사는 "신지애는 올해 벌써 11번 우승했다. ADT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도 명예의 전당 회원인 카리 웹을 상대로 침착한 경기운영이 돋보였다"라고 썼다.

/연합뉴스



26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08-'09 NH농협 V리그 한국도로공사-현대건설전에서 도로공사 밀라(17번)가 현대 김수지(6번), 염혜선(16번) 등의 수비벽 위에서 강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도로공사가 3-2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용병 밀라 34득점…도로공사 첫 승



대건설과의 경기에서 밀라의 34득점 활약을 앞세워 세트스코어 3-2(22-25 18-25 25-21 25-20 15-10) 승리를 거뒀다.

23일 GS칼텍스와 첫 경기에서 0-3 완패를 당한 도로공사는 이날 먼저 두 세트를 내준 뒤 3~5세트를 내리 잡아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반면 현대건설은 다 잡은 경기를 놓치며

지난 시즌 도로공사에 첫 경기 패배를 당한 뒤 11연패 진흙탕에 빠진 악몽을 떠올려야 했다.

수비가 안정되자 밀리의 파괴력이 빛을 발했다. 도로공사는 1, 2세트 현대건설의 좌우 공격에 뚫리며 끌려갈 때만 해도 패색이 짙었다. 박주접 감독은 3세트부터 키 189cm 하준임을 기용해 블로킹 벽을 높였고, 수비가 안정되자 밀리의 공격이 살아났다. 1, 2세트 공격 성공률이 40%대 초반에 그친 밀리는 3, 4세트 훈사자 17득점을 쓸어담으며 역전 희망을 쏘아올렸다.

/연합뉴스